

진도군, 미래전략위원회 출범 ‘미래전략’ 강화

문화·개발 등 각 분야 전문가 13명
발전 방향 비전 자문 공동협력
14건 주요 현안 향후 계획 논의
균형발전 대규모 사업 방향 설정

진도군이 관광·문화·개발·유통 등 각 분야 전문가 13명을 위촉한 ‘미래전략위원회’를 출범해 미래전략 강화에 나섰다.

21일 진도군에 따르면 지난 16일 진도군청 회의실에서 진도군 미래전략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열고 미래전략 강화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진도군 미래전략위원회는 관광·문화, 행정, 기획·전략 등 다양한 분야의 경험

과 식견을 갖춘 13명으로 구성되어 진도군의 발전 방향과 비전에 대한 자문, 군정 주요 현안 과제의 국가계획 반영에 공동 협력을 할 계획이다.

지난 2년간 확보한 106건(2392억원)의 공모사업을 통해 군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 수립 시 자문 역할과 실효성이 높은 사업들을 제안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이날 위촉식에서는 국도 18호선 기점 변경, 호남고속철도 노선 진도 연장 등 14건의 진도군 주요 현안과 ‘전남형 균형발전 300사업’ 등 8건의 대규모 공모사업 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향후 계획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진도군의 미래 발



진도군이 관광·문화·개발·유통 등 각 분야 전문가 13명을 위촉해 ‘미래전략위원회’를 출범했다.

진도군 제공

전 방향을 제시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에서 미래전략 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진도

군 현안사업의 해결과 새로운 성장동력 사업 발굴에 위원회의 지혜와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진도=백재현 기자

강진만 갈대숲 에코 가족원정대 강진군, 내일까지 선착순 모집

강진군은 ‘제9회 강진만 갈대축제’를 맞아 26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강진만 생태공원 일원에서 ‘강진만 갈대숲 에코 가족원정대 시즌2’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생태체험 전문가와 함께하는 강진만 갈대숲 에코 체험으로, 유아 및 초·중·고등학생이 있는 가족 2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참가비는 1인당 5000원이며 참가 완료 시 ‘강진사랑상품권’으로 참가비를 전액 돌려받는다.

신청은 23일까지 네이버 폼(<https://naver.me/Grm7zIEq>)을 통해 선착순으로 가능하며, 대상자 확정 통보 후 체험비 납부 방법 등을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행사에 참여하는 가족에게는 모자, 친환경 키트, 생존 팔찌 등 3종의 증정품도 제공된다.

강진군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가족들과 함께 강진만 갈대숲의 아름다움을 느끼며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강진=김윤복 기자

장기요양기관 우수종사자 포상 국민건강보험공단 무안신안지사

국민건강보험공단 무안신안지사 신안 운영센터(지사장 정금희·센터장 김성운)는 장기요양기관 우수종사자들과 소통의 장을 마련해 품격 높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만들고자 지난 9월25일 우수종사자를 표창하고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표창 수여식에서 이사장상은 장희재 시설장(쑤남도노인복지센터)이, 지역본부장상은 장재순 사회복지사(빛과소금재가복지센터)와 진미정 요양보호사(늘푸른재가복지센터) 각각 수상했다.

표창 수여 이후 진행된 간담회는 장기요양기관 및 종사자와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현안사항을 공유하고 적극적인 현장 의견 청취하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제도와 통합재가서비스 예비사업, 통합운영시스템 등 장기요양 현안에 대한 사항을 공유하고 공단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 필요성을 홍보했다.

정금희 지사장은 “공단-장기요양기관의 파트너십 강화로 섬 지역 어르신들이 노년의 편안한 삶을 지낼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장기요양이 되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신안=홍일갑 기자



농협전남본부 관계자들이 지난 18일 진도군에서 열린 ‘전국 위험물 담당공무원 연찬회’ 참석자들에게 전남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아침밥먹기 캠페인을 펼쳤다.

농협전남본부 제공

전남농협, 쌀 소비촉진을 위한 아침밥먹기 캠페인

농협전남본부(본부장 박종탁)가 지난 18일 진도군에서 개최된 ‘전국 위험물 담당공무원 연찬회’ 참석자 350여명을 대상으로 전남 쌀 홍보 및 쌀 소비촉진을 위한 아침밥먹기 캠페인을 실시했다.

21일 농협전남본부에 따르면 이날 행

사는 전남을 방문한 위험물 담당공무원들에게 전남 쌀과 쌀도너츠를 나누며 전남 쌀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아침밥 먹기의 중요성 홍보했다.

박종탁 본부장은 “전남도를 방문한 전국 소방공무원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어떤 업무보다도 건강과 체력이 중요한 만큼 아침밥을 꼭 챙겨먹는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전남농협은 올해 상생발전 협약을 체결한 기관·기업과 함께 지속적으로 후속 사업을 전개하여 쌀값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진용 기자

신안군, 지도읍사무소 이전 가속화

이전 후보지 4곳 제출

주민들의 접근성 어려움과 좁은 도로로 인한 위험성 협소한 주차장, 30년 노후로 인해 이전 계획을 세우고 있는 지도읍사무소 이전이 가속화되고 있다.

지난 18일 지도읍사무소 이전 추진위원회(위원장 김용범)는 주민들의 청원서명을 받아 박우량군수와 신안군의회 이장주의장에게 4곳의 후보지를 선정해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선정기준은 주민들의 편리한 접근성과 안정성, 관계시설 관리 용이성, 최소비용 건축 등 다양한 선정기준으로 준비하고

있다.

지도읍은 조선말 1896년부터 일제강점기 1914년까지 지금의 군산부터 진도까지 우리나라 서남부를 관할하던 지도군 관아가 있었으며 1914년부터 무안군에 속해있다가 1969년 무안군에서 신안군으로 분군돼 신안군 북부의 중심으로 발전해 왔으며 1980년 지도읍으로 승격됐다.

현재 지도읍사무소 청사는 1993년 신축돼 31년이 지났으며 노후된 시설로 인해 빗물이 새고 주차장이 부족해 민원인들의 이용에 큰 지장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신안군은 4곳 후보지를 놓고 실시설계 용역 등 타당성 조사후 최종 이전 후보지

를 선정할 계획이다.

김용범 위원장은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읍사무소 이전을 위해 군의원, 사회단체장, 마을대표 등 27명이 참여해 청사건립 추진위원회를 만들었다”며 “현 지도읍 청사는 비가 새고 청사 진입 구간이 급경사 커브길로 사고 위험이 아주 높다”고 이전 필요성을 설명했다.

박상규 지도읍장은 “이전 후 현 읍사무소 자리는 옛 지도군 관아터인 만큼 복원해 주민들의 자긍심을 높일 계획이다”고 밝혔다

박우량 군수는 “주민들의 의견이 어느 정도 모아진 것으로 보이고 노후된 청사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신속히 추진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신안=홍일갑 기자

영암군 ‘금연구역 합동 점검·단속’ 실시

영암군이 공공이용시설 금연 환경 조성과 지역사회 금연 문화 정착을 위해 11월29일 까지 ‘금연구역 합동 점검·단속’을 실시한다.

21일 영암군에 따르면 합동 점검 장소

는 국민건강증진법과 영암군 조례에 지정된 공공이용시설 금연구역으로 공공청사, 의료·교육시설, 요식업체, 게임제공업소, 실내체육시설 등 총 2064개소다.

주요 점검사항은 △금연구역 알림 표

지판·스티커 부착 여부 △금연실 설치 기준 준수 △전자담배 포함 금연구역 흡연 행위 등이다.

단속 결과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금연구역 지정의무를 위반 등 행위는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영암=한교진 기자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 영암군, 31일까지 선착순 25명

영암군이 31일까지 ‘2024년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신규 참여자를 모집한다.

21일 영암군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융자금 이자를 지원하는 이번 사업에는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하는 소상공인이 참여할 수 있다.

선착순 25명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에 선정되면 최대 5000만원 이내의 융자에 대해서 영암군은 4년 동안 연 4%의 융자금 이자를 지원한다.

이차보전금을 지원받을 소상공인은 영암군 농협은행 영암군지부, 영암신협, 영암성실새마을금고 등 협약 금융기관을 방문해 대출상당확인서를 받은 다음 구비서류를 작성해 영암군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에 접수하면 된다.

영암군 소상공인지원위원회가 신청 소상공인 중에서 심의를 거쳐 지원자를 최종 확정한다.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암군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볼 수 있고 안내는 지역경제팀(061-470-2448)에서 한다.

김동식 영암군 일자리경제과장은 “경기 악화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금부담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영암=한교진 기자

열매분재 특별전 개최

신안군 1004섬 분재정원

신안군은 신안군 1004섬 분재정원에서 지난 18일부터 ‘열매분재 특별전’을 개최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전시되는 분재는 모과나무, 피라칸다, 감나무, 쪽지윤노리 등으로 열매로 표현하는 분재의 아름다움을 선보이고 대중적 관심 유도 분재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것.

전시되는 분재는 크기가 큰 나무들을 소형화하고 열매를 분재로 표현함으로써 분재에 대한 일반적 인식의 전환과 다양하게 표현되는 분재의 매력, 그 이상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안군은 1섬 1뮤지엄 정책, 1섬 1정원화 정책과 함께 꽃과 수산물을 이용한 사시사철 축제가 끊이지 않는 등 남들이 가지 않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 지자체로 이번에는 열매를 주제로 하는 이색적 분재특별전을 준비하고 있어 또한번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신안군 관계자는 “이번 전시회가 일반적인 인식을 넘어, 분재의 다양성과 매력을 볼 수 있는 기회인 만큼 많은 분이 오셔서 분재를 감상하고 또 이번 전시회가 열리는 1004섬 분재공원의 다양한 테마정원을 즐기며 무거운 마음을 한결 가볍게 하고 돌아가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11월에는 신안군 1004섬 분재공원에서 ‘2024 대한민국 분재 대전’을 개최한다.

신안=홍일갑 기자

